

광주 경찰·소방에 온 꽃게 선물... "마음만 받을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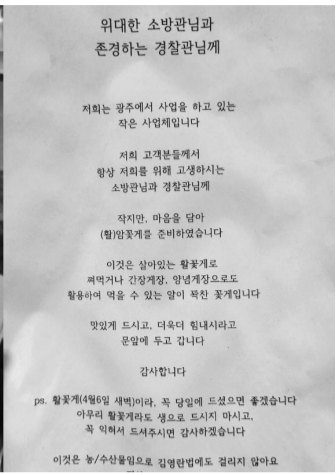
익명 시민, 지역 280여곳 기부 경찰, 공무원강령 따라 반환

익명의 시민이 광주 지역 경찰·소방서, 복지관 등 280여곳에 '꽃게'를 선물해 지역 사회에 훈훈함을 자아냈다. 다만, 관련 법상 공무원은 기부품을 받지 못해 당국은 반환 또는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받기로 결정했다.

8일 광주경찰, 광주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새벽 관내 지구대·파출소 24곳과 관내 소방안전센터 15곳에 2kg 꽃게 상자와 감사 편지가 배달됐다. 신원을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퀵 배송을 통해 기부품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편지에는 "광주에서 사업하고 있는 작은 사업체다. 저희 고객들이 고생하는 소방관과 경찰관들께 작지만 마음을 담아 활암꽃게를 준비했다"며 "맛있게 드시고 힘내시길 바란다. 항상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일 아침에 선물과 편지를 발견한 영주119안전센터 한 소방대원은 "아침에 출입문을 열어보니 박스가 있어 놀랐다"며 "자세히 보니 박스 위에 감사 편지가 올려져 있어서 기부품인 것을 알게 됐고 감사 편지를 읽고 난 뒤 소방관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익명의 한 시민이 광주 지역 경찰·소방서 등에 전달한 꽃게와 편지.

광주 서부소방서 제공

확인 결과 '익명의 천사'는 소방·경찰서 뿐만 아니라 관내 병원과 복지시설 등 총 280곳에 꽃게를 배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기부품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무원 행동강령, 기부금품법에 의해 행정 목적이 아닌 위문품 성격의 기부품은 수수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기부자를 수수문해 찾아낸 경찰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 뒤 상황을 설명하고 모두 반환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관서 24곳 중 5곳

은 즉시 반환했고, 나머지 19곳의 기부품은 오늘 모두 수거했다"며 "수거한 꽃게는 업체를 직접 방문해 이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 뒤 모두 반환했다"고 설명했다.

소방당국도 일단 해당 물품을 냉동 보관하고,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소방본부 관계자는 "꽃게가 배달된 기관을 자치구별로 파악하는 등 절차가 필요하다"며 "내일까지 기부심사위원회에 신고해 심의받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강주비 기자



제22회 엠마우스슈퍼풋살대회 성료

지역시설 장애인 풋살 동호인들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는 '제22회 엠마우스슈퍼풋살대회'가 지난 6일 광주상무시민공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사진)

엠마우스슈퍼풋살대회는 광주시장 애인체육회와 사회복지법인 무지개공동회가 공동 주최하고 엠마우스복지관이 주관해 지역 내 발달장애인들의 건강한 신체발달과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는 엠마우스복지관, 광주 카리타스근로시설 등 광주지역 16개 팀 200명이 참가해 4개 조별 리그로 진

행됐다. 자원봉사자 및 대회 서포터스단 800명 등도 참여해 열린 응원과 함께 돈독한 우정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경기결과와 조별 1위는 엠마우스복지관(A조), 오뚝기FC(B조), 엠마우스보호작업장(C조), 로렌시아의집(D조)가 차지했다.

2위는 광주카리타스근로시설(A조), 금육보호작업장(B조), 씨튼장애인지업재활센터(C조), 애일의집(D조)이 수상했다. 나머지 8개 팀은 각각 3위~4위를 차지했다.

최동환 기자

마동석, 예정화와 5월 결혼식... 혼인신고 3년만

배우 마동석(53)과 방송인 예정화(36)가 혼인 3년만에 결혼식을 연다. 빅편지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마동석·예정화 부부가 다음 달 26일 결혼식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행사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며 비공개로 진행된다.

두 사람은 2021년 혼인 신고를 하고 부부가 됐으나 식은 하지 않았다.

마동석·예정화는 2016년부터 교제해왔고, 재작년 마동석이 12회 아름다운예술인상에서 영화예술인상을 받은 뒤 소감을 얘기하다 예정화를 "아내"라고 해 뒤늦게 혼인 신고 사실이 알려졌다



마동석, 예정화

다. 한편 마동석은 오는 24일 '범죄도시 4' 공개를 앞두고 있다.

뉴스스



마한농협주유소 양산점, 취약 아동 후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는 마한농협주유소 양산점이 8일 나주시 취약계층 아동들에 후원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

물품후원은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쌀 120kg로 나주시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정찬규 마한농협주유소 양산점 소장은 "아이들이 배부르고 행복할 수 있도록 기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유성 초록우산 전남지역본부 본부장은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아 기자



조선대병원, 방사선비상진료 집중 훈련

조선대학교병원은 지난 3일 남부대학교에서 실시한 '2024 방사선비상진료 집중 훈련'에 참가했다. (사진)

8일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이날 훈련은 방사선비상진료 현장 대응 사전준비·중증도분류·철수 단계의 주요사항을 집중적으로 훈련하여 방사선비상진료 기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주최 및 주관한 이번 훈련은 8개 기관(약 80여명)과 모의환자 55명(남부대 학생) 참가했고, 조선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비롯한 관계자 등 총 10여 명이 참석해 훈련에 임했다.

노병하 기자



광주TP,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설명회

광주테크노파크(광주TP)는 최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

이번 설명회에는 고용노동부의 '지역혁신프로젝트'와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관련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안정 등 기업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기업지원사업은 지역의 전략적인 고용창출을 위해 지역 내 핵심비영리기관, 예산, 인력 등을 활용해 혁신선도 사업에 집중하는 지역 주도의 일자리 사업이다. 수행기관은 광주테크노파크, 광주디자인진흥원, 광주경제진흥원생일자리재단, 광주경영자총협회, 지역고용정책연구원으로 광주시와 협력해 지역 고용현안 해결과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박소영 기자



법무보호복지공단 남부지소 청렴실천 다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지소장 김명진)는 8일 '청탁 NO, 청렴 YES' 가치를 걸고 청렴 실천 다짐 서약식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 (사진)

서약식은 광주를 정책 방문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황영기 이사장과 김창승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남부지소협의회장, 법무보호위원 등 30명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청렴 의식 함양을 통한 세대·직급 간 화합과 즐거운 직장 문화 확립, 법무보호위원과 직원 간 투명한 청렴 문화 조성과 갑질 근절 도모를 위해 마련됐다.

김창승 협의회장은 "서약식을 계기로 직원과 법무보호위원에 청렴 문화가 확산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간재 기자



이문세 '2024씨어터' 서울 공연 성료

가수 이문세가 공연 장인의 면모를 과시했다.

8일 소속사 케이문토프엔디에 따르면, 이문세가 지난 3, 5, 6일에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2024 씨어터(Theatre) 이문세' 서울 공연을 진행했다. '씨어터 이문세'는 2년에 한 번씩 콘셉트를 바꿔 진행하는 이문세의 시즌제 브랜드 공연으로, 이번이 네 번째 시즌이다.

지난해 안식년을 선언한 뒤 휴식기를 가졌던 이문세는 이번 시즌4 공연에서 '사랑이 지나가면' (1987) '옛사랑' (1991) '깊은 밤을 날아서' (1987) '소녀' (1985) '광화문 연가' (1988) 등 히트곡을 열창했다. 그간 공연에서 선보이지 않았던 명곡들의 무대까지 다채롭게 선보였다. 특히 이문세는 화려하고 세련된 구

성으로 레전드 가수만이 가능한 무대를 제대로 보여줬다. 관객들의 폐장을 유도하며 흥겨운 무대를 연출하거나 록 스타를 방불케 하는 강렬한 기타 연주로 넘치는 카리스마와 에너지를 전달했다.

이번 공연은 지난 시즌에 이어 이종석 서경대 뮤지컬과 교수가 연출을 맡았다. '2023 대중문화예술포럼 제작스태프 대상 문체부 장관상'을 수상한 김미경 기술 감독, '콘진원장상'의 이정기 조명 디자이너, 콘서트 음향 전문가 김도길 음향디자이너, 연극뮤지컬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은석 무대디자이너 등이 합류해 완성도 높은 공연을 만들어냈다.

한편 '씨어터 이문세'는 광주, 부산, 안산, 대전, 경산 등에서 이어진다.

뉴스스